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118)

[정부 진상규명위 구술자료집 무엇을 담았나]
"제주도내외 출신자들 혹독한 고통 시달려"

입력 : 2008. 09.18. 00:00:00



▲태평양전쟁 말기 전남 광양 광산 광부들이 강제 동원돼 구축한 일출봉 해안특공기지.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일하지 않는자는 황국신민이 아니다' 자료집 본보 특별취재팀 사진 등 인용 입체조명 눈길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출신 강제징용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전쟁수행을 위한 노역과 공출에 시달렸다. 일제는 노동력이 있는 자는 노동력으로 전쟁(태평양전쟁)에 기여해야 진정한 황국신민(일본인)이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즉 노동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자는 황국신민(제국국민)이 아니라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 제주도민들은 전쟁수행에 내몰렸다.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군사시설은 이처럼 일제가 제주도 및 다른 지방 사람들을 강제동원해서 구축한 고통스런 역사의 산물이다. 하지만 제주도 일본군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일본 패망 60년이 지나도록 무관심속에 방치돼 왔다. 몇 년 전부터 언론 등이 탐사를 통한 집중 조명이 이뤄지고, 실제규명을 꾸준히 제기해오면서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학술조사에 나선 상태다.

정부 위원회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에서도 최근 강제동원 진상조사 구술자료집을 펴내 당시 실상을 전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자는 황국신민이 아니다-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된 민중의 기억'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제주도 직권조사 과정에서 면담한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의 증언을 담았다.

제주도 주민들은 각 지역단위로 조직한 근로보국대라는 명목으로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됐다.

근로보국대는 당시 '나라, 즉 일본을 보호하는 대(隊)'라는 뜻으로 무보수 봉사를 강요했다. 또한 다른 지방의 광산노동자들은 현장징용(현원징용)이라는 이름 아래 제주도로 끌려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징용은 노동력 이탈을 막기 위해 1944년 2월쯤부터 공장이나 광산 등에 실시한 것으로 일반 재직자가 징용자의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자료집에 등장하는 증언자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털어놓고 있다.

"일본 국민이 되려면 말이나 소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공출해야 했다"(이백년 할아버지·1916년생·서귀포시 대정읍)거나, "일본은 가미노(神) 군인이니까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황민화 교육을 시켰다"(송문영 할아버지·1926년생·서귀포시 성산읍)는 증언은 일본군이 얼마나 전쟁에 혈안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는 전남과 경남지역 광산출신들이 제주도로 많이 동원됐음을 알 수 있다.



▲북해도 신비바이 탄광으로 동원된 제주도 주민들의 모습.

구술자 중에는 전남 해남 옥매광산에서 제주도로 동원됐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김백운 할아버지(1928년생·전남 목포시)도 들어있다. 김 할아버지는 제주도에서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됐다 귀향하는 도중 선박침몰로 1백여 명이 몰살당하는 참극 가운데 살아남았다.<본보 2006년 12월 7일자 5·7면, 2007년 1월11일자 1·7면> 이 사건은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이 귀향도중 몰살당한 대표적인 경우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한중(1922년생·전남 광양시)·주덕만 할아버지(1928년생·전남 광양시)는 전남 광양읍 광양광산에서 1945년 1월 무렵 성산일출봉 해안 특공기지 구축에 동원된 경우다. 김용문 할아버지(1926년생·전남 순천시 서면 거주)는 진해 해군시설부 소속으로 같은 시기에 한경면 고산 수월봉 해안 특공기지 구축에 동원됐다.

장 할아버지는 광양광산에서만 3차례에 걸쳐 8백명 정도가 제주도로 징용됐다고 털어놓는다.

주 할아버지는 "일본군이 밤에도 일을 시킨다고 하는 바람에 일출봉 해안은 갯도 하나에 3명씩 6명이 들어가 7개월 만에 작업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때 제주도 해녀들은 "일본군인에 안 잡혀 갈려고 1년에 미역을 50관 바쳤다"며 강제노역과 공출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자료집은 생생한 증언과 함께 본보 특별취재팀의 사진자료 등을 수록하는 등 입체적 조명을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이병례 전문위원은 "제주도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갯도진지 들이 만들어졌다"며 "제주도민 뿐 아니라 다른지방 출신자들도 동원돼 강도 높은 노동으로 혹사당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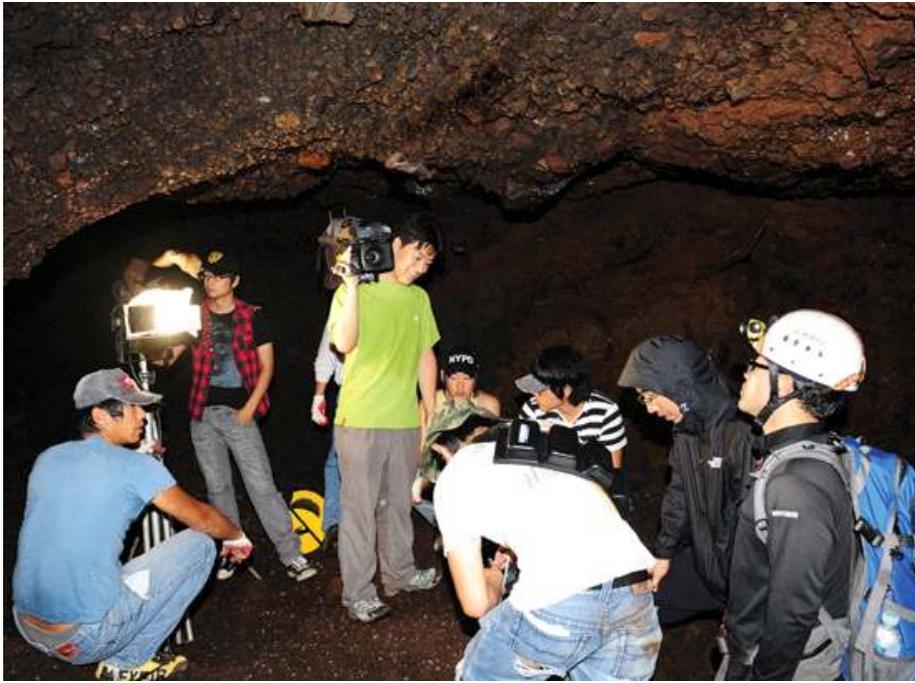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역사교실·체험·특집방송 잇따라

취재팀에 현장답사 요청 이어져

태평양전쟁 당시 구축한 일본군 군사시설을 체험하기 위한 현장답사와 역사교실 등이 꾸준히 이어지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적인 관광이나 여행에서 벗어나 비극적 역사현장을 둘러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체험 장소로서 제주도 일본군 군사시설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본보 특별취재팀에도 현장답사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4·3연구소(소장 박찬식)는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3역사문화해설사 교육을 개설하면서 8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제주도 일본군 군사시설과 관련한 강좌를 마련했다. 본보 특별취재팀 이윤형 팀장의 강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배경과 실태 및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안내에서는 조천읍 서우봉 특공기지와 58군사령부 주둔지인 한라산 어승생악 토치카 및 갯도진지를 체험하는 코너가 마련됐다.



▲KBS제주방송총국 취재팀의 촬영모습.

또한 KBS제주방송총국은 광복 65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일본군 군사시설을 조명하는 특집을 마련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14일 오후 내보낸 특집방송은 본보 특별취재팀의 탐사모습과 갯도진지 구축 현장 및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 일본군 군사시설의 역사적 의미와 구축배경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이에 앞서 일본 히로시마교직원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소속 교직원들 역시 지난달 특별취재팀의 현장안내로 일본군 군사시설을 답사하면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제주도민과 한국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역사적 아픔에 공감을 표시했다.

히로시마교직원조합 소속 초중등 교사들은 한일공통 역사교재를 만들어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교육현장에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이달 30일에는 일본 마쓰시로고교 수학여행단 2백여 명이 제주를 찾아 태평양전쟁 시기 군사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에 산재한 태평양전쟁 관련 군사시설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명작업과 종합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